

필리핀 최악 수해현장 '희망나무' 긴급구호단 동행 르포

도시 70% 2주째 물에 잠겨 의료·생필품 없어 아우성

뗏목 유일한 교통수단
오염 악취 전염병 조짐

마닐라=최권일 기자

지난 25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라구나주(州) 산페드로(Sanpedro) 시(市) 란다안(Landayn) 자치구. 이 달 초인 5일부터 10일 동안 하염없이 내린 비는 이곳을 온통 호수 도시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2주째 도시가 물에 잠겨 있다. 물이 성인 가슴까지 차오른 침수지역은 이미 오염돼 악취가 코를 찔렀고, 주민들의 교통수단은 자신들이 마을 인근에서 구한 목재로 만든 뗏목이 유일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란다안 자치구 1만2000가구 중 8000가구가 물에 잠겼고, 1만 여명이 뗏목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삼고 수몰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몰지역은 깊게는 2m, 낮게는 1m까지 물이 차올라 뗏목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다 생필품마저 모두 떨어져 반찬 없이 쌀로 근근이 2주간을 버티고 있지만,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소보다는 그나마 집이 더 낫다는 생각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란다안 체육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집이 모두 물에 잠겨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이재민 500여명이 체육관에 모여 물이 빠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각종 구호단체의 구호품을 받고 있던 이재민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끼니는 구호단체와 정부에서 준비해준 쌀 등으로 간신히 해결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부모를 잃은 고아도 상당했다. <2면에 계속>

/cki@kwangju.co.kr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란다안 자치구 주민들이 26일 뗏목을 이용해 수몰된 지역을 이동하고 있다. 란다안 지역은 지난 5일부터 10일간 내린 비로 1만2000가구 중 8000가구가 물에 잠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경선 초반부터 파행

모바일투표 공정성 논란 손·김·정 불참...제주·울산 문재인 1위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허점투성이 모바일투표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경선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순회경선 이틀째인 26일 오후 울산 중화체육관에서 울산지역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손학규·김두관·정세균 등 이른바 비문(비문재인) 후보 3명이 모두 불참했다.

세 후보는 이번 모바일투표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투표율(58.6%)이 역대 모바일투표에 비해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미 투표가 진행된 제주·울산 재투표와 모바일투표 시스템 전면 수정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새로운 경선관리 체제가 필요하고, 그 관리체제는 후보 측 대표들이 옵서버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손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현 당 선관위의 경선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선관위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 최고위와 선

관위는 합동 간담회를 열어 제주·울산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를 재검표해 문제가 되는 선거인은 절차를 밟아 투표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경선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세 후보는 모바일투표 방식 변경 없이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울산 경선이 당과 후보 측 간 대립으로 두 시간째 파행이 이어지자 오후 4시 후보연설회를 생략하고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손·김·정 후보 측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이날 강행된 울산 경선에서는 문 후보가 4951표(52.1%)를 얻어 3053표(32.1%)에 그친 김두관 후보를 제쳤다. 이어 손학규(1117표, 11.8%), 정세균(387표, 4.1%) 후보 순이었다. 이에 앞서 전남 실시된 제주 경선에서는 문 후보가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2만102표 가운데 1만223표(59.8%)를 얻어, 4170표(20.7%)를 얻는데 그친 손 후보를 제쳤다. 김 후보가 2944표(14.7%)를 얻어 3위를 차지했고, 정 후보는 965표(4.8%)로 4위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태풍 '볼라벤' 영향권 광주·전남 강풍 최고 300mm 비

초대형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27일 오후 늦게부터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겠다. <관련기사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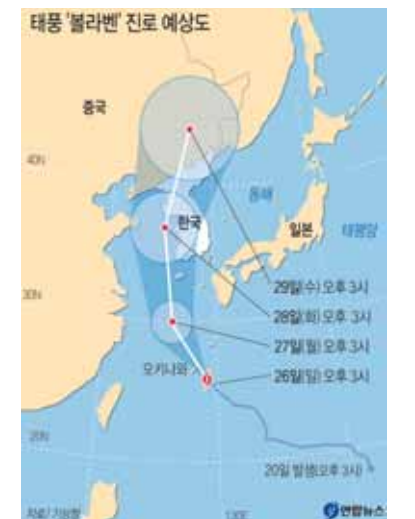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볼라벤(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53m/s)이 이날 오후 3시 현재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20km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27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 태풍특보

가 발효되고, 광주·전남지역에는 이날 오후 늦게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28일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너울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폭풍해일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최대순간풍속은 광주·전남은 30~40m/s, 서해안과 서·남해 도서지역은 50m/s 이상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 지역에는 100~20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한편, 제14호 태풍 '템빈'(TEMBIN·970hPa, 36m/s)은 26일 오전 09시 현재 대만 남서쪽 약 600km 해상에서 느리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충장서림 마저도...

나라·삼복 이어...구도심 대형서점 모두 폐업

오프라인 서점가의 불황에도 곳곳하게 명맥을 이어온 광주 충장서림(대표 장기원)이 이달 말 문을 닫는다. 1996년 폐업한 나라서림과 지난 2008년 문을 닫은 삼복서림에 이어 광주 구도심의 대형 향토서점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충장서림은 이달 중 서점에 있는 책을 모두 반출한 뒤 오는 31일 폐업 신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980년대 소규모 책방으로 시작한 충장서림은 1996년 호남지역 최대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3000㎡ 약 600평)의 대형서점을 표방하며 현재 위치에 문을 열었다. 이 서점은 지난 16년여 동안 구도심 지역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도심 공동화 현상과 전국적인 불황 그리고 인터넷 서점의 저가 할인 공세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침체를 겪어왔다.

충장서림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도 우려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소설가 이화경



대형 향토서점의 명맥을 유지해왔던 광주 충장서림이 이달 말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지역민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48)씨는 "충격적이고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며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상업적인 공간만 난무하는 세태가 원망스럽고 또 슬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충장서림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사업 등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IOPE 스킨리프트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 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글케어, 리얼이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 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ing Pore Care Throat Care Sun Care Hydrating